

조선 선조대 임진~정유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의 활동 연구

박순우*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몇 가지 의문: 태색(太穢)의 행적과 『亂中日記』의 태귀생 기록의 문제 |
| 2. 임진~정유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 활동 기록 분석 | 5. 맺음말 |
| 3. 난중일기에 보이는 발해인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 선조대 임진~정유년 시기에 남원지역에 대대로 세거한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임진~정유년 시기에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남원 일대에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에 대대로 세거한 협계태씨 발해인들이 임진~정유년 시기에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은 고려시대 발해인 대집성을 중조(中祖)로 하는데, 선초(鮮初)에 남원으로 이거한 이후 대를 이어 오고 있다. 남원의 발해인들이 임진년 시기에 호남 보위에 매우 중요했던 웅치(熊峙)·이치(梨峙)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태색(太穢)을 위시하여 일가의 인물들이 후방에서 병량(兵糧)을 모아 명나라 군사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조정으로부터 태색이 군사감(軍資監) 참봉(參奉)직에 제수되었다. 정유년 재침시에는 일가의 구성원들이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역사철학부 역사전공 강사, E-mail: 77everest@hanmail.net

종족 수십 명과 가동 수백 명을 이끌고 남원성으로 들어와 왜군과의 일전을 준비 하였는데, 태구는 전라병사 이복남의 종사관으로 활동하였고, 태시경은 남원부 별 감으로 의사 오홍업과 함께 성을 수비하였다. 전쟁 후 이들 가문은 ‘一門五絶’로 불렸고, 모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아울러 『난중일기(亂中日記)』 속 태구련(太九連)과 이순신 장군의 장점을 제작 한 태귀련(太貴連)이 모두 ‘칼’ 제작에 뛰어났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두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난중일기』에는 태씨 성을 가진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정유재란시 남원성에서 순절한 태귀생(太貴生)과는 동명이인으로 추정된다. 태귀련과 태귀생이 협계태씨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순신 장군이 호남의 서·남해안 일대에서 활동한 사실과 남원의 협계태씨가 선조 이래 호남지역에서 대대로 세거해 온 사실을 고려하면 협계태씨 발해인일 가능성 까지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은 태색을 주축으로 임진~정유년 시기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섰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임진왜란, 정유재란, 협계태씨(陜溪太氏), 태색(太穡), 태구(太鳩)·태시경(太時慶) 부자, 태귀생(太貴生)·태천생(太賤生) 형제

1. 머리말

조선 선조대의 임진-정유재란이 조선왕조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국난의 시기였다는 연구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¹⁾ 그로 인해 선조대 임진-정유재란에 관한 연구는 여러 시각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뤄졌다.²⁾ 그중 호남지역과 관련해서는 의병 봉기의 동기, 조직과 성격, 의병 지도층의 사회적 배경 등

1)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 新現實社, (이병도의) 序;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전북인의 창의활동 - 《호남절의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 송정현, 1989, 『임진호남의병 기병고』 『역사학연구』 3;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2) 본고는 임진-정유재란기를 다루고 있지만, 특정 지역과 가계의 인물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임진-정유재란기에 대한 연구사 소개는 간략하게 대체한다. 임진왜란기 의병에 대한 연구성과는 조원래, 2006,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현재에도 임진-정유재란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전국 또는 지방 단위에서 임진왜란 관련 학술행사가 지역별로 늘어나면서 연구의 양적 증가가 눈에 띈다(하태규,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73~75쪽 참조).

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됐다.³⁾ 그러나 그것만으로 임진-정유재란기 호남 의병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거나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적지 않은 분야에서의 해명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타당하다.⁴⁾ 본고는 임진-정유년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조·명연합군의 대 왜군 전투와 이순신 장군의 해전, 호남 지역에서의 의병 활동 등 국난극복이라는 거대담론을 주요 주제로 다루지는 않는다.

본고는 선초 이래 남원지역에서 세계를 이어온 고려시대 발해인의 후손들, 즉 남원 일대에 터를 잡고 대대로 계대(繼代)해 온 협계태씨 후손들이 임진-정유년 시기 국난을 맞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려 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초유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엄혹한 시기에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지역민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극복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연구 사적으로나 지역사 연구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남원을 기반으로 대대로 세거해 온 발해인들을 검토하는 것은 임진왜란기 남원지역 의병 활동상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사의 복원과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생애사를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⁵⁾

지금까지 조선시대 발해인들, 특히 남원지역에 대대로 세거하며 가계를 일궈낸 고려시대 발해인들의 후손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 기초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해당 가계의 가승인 족보의 내용이 족보 편찬 이전의 여러 사료에서 확인됨으로써, 현전하는 조선 후기~일제 강점기에 편찬된 족보 기록을 보완해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가승인 족보 기록도 주의 깊게 검토하면 남원지역 발해인의 개인 생애사 및 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사료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⁶⁾

3) 임진왜란기 호남지역 의병 연구현황은 하태규,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참조 바람.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참조.

4) 호남지역 의병 연구에 대한 지적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하태규,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참조.

5) 본고는 임진-정유재란기 협계태씨 발해인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가 발굴된다면 이 시기 발해인들의 의병 참여가 임란기 호남 의병의 활동이라는 큰 틀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사료 부족의 한계를 절감하고,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행적을 조금이나마 복원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가 ‘발해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의미 부여나 오해가 없길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박순우, 2020, 『고려후기 발해인 세거(世居) 사례와 조선시대 ‘발해인(渤海人)’ 연구 시론 -‘족당(族黨)’의 용례와 남원지역 협계태씨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2, 263쪽 각주 41번 참조 바람.

6) 근래에 조선 초 남원지역에 세거한 협계태씨 발해인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 다만, 해당

이에 본 연구는 2장 1절에서 임진-정유년 시기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남원지역 의병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면, 남원에서 일어난 의병 활동도 그에 합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2절과 3절에서는 임진년 시기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⁷⁾ 임진-정유년 시기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활동상은 해당 가계의 가승인 족보 기록 이외에도,⁸⁾ 남원의 읍지(邑誌)로서 그 상세함을 인정받는 『龍城誌』와 국난기마다 호남지역에서 거의(擧義)한 사실을 기록한 『湖南節義錄』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⁹⁾ 이들 기록과 비교, 교차 검증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선대를 현창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족보 기록에 치우치는 실수를 줄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순신의 『亂中日記』에도 발해인들이 확인되는 바 이들의 활동과 남원의 협계태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검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앞의 논의 중 검증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원의 협계태씨의 의병 활동에 대한 온당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남원 지역사의 일면이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는 조선초기 인물인 태응진을 중심으로 한 가계 인물의 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였다. 따라서 해당 가계의 가승인 『陝溪太氏族譜』(咸北吉州; 雄文堂, 1928刊)의 기록과 남원의 읍지인 『龍城誌』의 기록, 그리고 조선시대 호남지역에서 일어난 거의(擧義)를 기록한 『湖南節義錄』의 기록을 상호 교차 검토한 뒤 해당 가계의 가승인 『陝溪太氏族譜』 기록이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박순우, 2020, 「고려후기 발해인 세거(世居) 사례와 조선시대 ‘발해인(渤海人)’ 연구 시론 - ‘족당(族黨)’의 용례와 남원지역 협계태씨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2).

- 7) 최근의 지역사 연구와 인물 연구가 해당 가문 또는 지역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 선대의 업적을 찾아내 현창하려는 의도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려는 자치단체의 경향이 짙게 드러나기도 한다. 본고는 임진-정유재란기 협계태씨 발해인의 행적을 검토하는 데 있어 남원시, 또는 남원의 협계태씨 가문과 일면식도 없음을 미리 밝혀 둔다. 본고에서 사용된 두 본의 『陝溪太氏族譜』(1856년·1928년)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입수하였다.
- 8) 『陝溪太氏族譜』는 오랜 기간 신빙성 문제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협계태씨족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사실상 일부 기록의 문제를 족보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한 것에 가깝다. 따라서 해당 족보 기록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 연구 차원에서, 또 해당 가계 인물의 생애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 및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협계태씨족보』는 현전하는 1856년刊·1928년刊의 두 본의 기록을 함께 검토하였다.
- 9) 『湖南節義錄』에 대한 자료 소개 및 사료 비판에 대해서는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전북인의 창의활동 - 《호남절의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 192~198쪽 참조(『전환기 호남지역사 연구』, 나라, 1997에 재수록); 노기춘, 2009, 「호남절의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본고는 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본(효안OC2H1호211 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2-491)을 대조 비교하여 역주를 진행한 김동수의 『교감·역주 호남절의록』(경인문화사, 2010)을 참조하였다.

2. 임진~정유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 활동 기록 분석

임진왜란기 호남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의병은 전라도 지역의 방어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까지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의병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량 등을 조달함으로써 조선이 왜군과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는 과하지 않다.¹⁰⁾ 임진년 전쟁 발발 이후 5년의 전쟁에서 전라도 지역은 왜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조선의 병력과 군량의 상당수는 호남에서 차출될 수밖에 없었고,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호남의 인력과 물력은 고갈된 상태에 처하였다.¹¹⁾

전쟁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정유년에 조선을 재침한 분명한 목표가 조선과의 강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호남의 장악이었으며,¹²⁾ 그에 따라 14만이 넘는 대병력 중 6만이 조금 못미치는 병력이 남원을 향해 진격했다.¹³⁾ 그 결과 호남지역에서의 정유재란은 임진년의 난보다 좀더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다. 전 국토가 짓밟히는 초유의 상황에서, 일본의 대병력이 호남을 목표에 두고 진격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임진~정유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의 활동 기록을 검토하기 전 남원의 전략성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기왕의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1절). 임진년 시기에 남원의 협계태씨의 발해인의 활동과(2절) 정유재란기의 협계태씨 발해인의 활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자(3절).

1) 남원의 전략성 중요성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임진왜란 연구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

10)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전북인의 창의활동 - 《호남절의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 191~192쪽; 하태규, 1999, 「丁酉再亂期 全羅道 지방의 義兵活動에 대하여 全羅道 北部 地方의 義兵活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0; 하태규, 2008, 「임란기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추이」 『전북사학』 32.

11) 하태규, 1999, 「丁酉再亂期 全羅道 지방의 義兵活動에 대하여 全羅道 北部 地方의 義兵活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0, 102쪽.

12) 豊臣秀吉은 정유년(1597) 2월 21일 조선 침략을 위한 부대에 ‘赤國(전라도)은 반드시 빼짐없이 공략하고, 靑國(충청도)과 기타지역은 가능한 공략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李炯錫, 1975, 『壬辰戰亂史』(中), 新現實社, 946쪽 재인용;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31쪽 참조.

13) 일본군의 정유년 재침과 공격 과정에 대해서는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中), 新現實社, 945~949쪽 참조.

되었다. 李焜錫은 임진~정유재란을 연구하면서 남원성 전투에 대해서 다룬 바 있다. 다만 그의 연구는 초기의 연구로서 남원성 전투를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¹⁴⁾ 남원성 전투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희환의 연구에서 깊이 있게 이뤄졌다.¹⁵⁾ 이후의 연구들도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¹⁶⁾

후대의 연구자들이 남원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는 이유는 당대를 헤쳐나간 이들이 남긴 기록에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시에 일본과의 강화 협상이 결렬되면 일본군의 재침을 예상하였을뿐더러, 주된 공격 대상은 전라도가 될 것이라고¹⁷⁾ 조선의 국왕 선조도 인식하고 있었다.¹⁸⁾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반적인 인식이었기에 조선에 군대를 파병한 명나라의 인식도 조선과 다르지 않았다.¹⁹⁾ 그러한 이유로 정유재란 발발 이전부터 명나라의 병력을 남원과 전주에 배치했던 것이다.²⁰⁾

남원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남원의 역사, 지리, 문화를 상세하게 전하는 남원의 읍지인 『龍城誌』에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龍城: 남원)… 호남과 영남의 요충에 처하여 국가의 보장’이라는 것과,²¹⁾ 호남의 중요한 성 6개

14) 李焜錫, 1974, 『壬辰戰亂史』(中), 新現實社, 1008~1019쪽 참조.

15) 이희환, 1983, 「정유재란시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16) 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전라도 북부 지방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0; 정영태, 2014, 「정유재란시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충」 『역사학연구』 56.

17) 당시 황신(黃愼)은 일본이 조선을 재침한다면 전라도와 제주도, 그리고 조선의 수군이 주 공격 대상이 될 거라 보고한 바 있다(『宣祖實錄』 권83, 선조 29년(1596) 12월 23일(을유) 2번째 기사).

18) 『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1596) 11월(기해) 1번째 기사, “上曰, ‘賊兵若再動, 必先犯湖南. 若爾則必由沿海, 豈不大可憂乎?’ …(중략)… 德馨曰, ‘賊若長驅, 必以輕兵, 直進據湖南. 湖南, 精兵多在之地, 且城厚完, 第數年間, 徭役煩重, 人心殊常. 脫若賊來, 必湖南不失, 然後可以保國脈矣.’ 上曰, 賊知完全, 必犯湖南. 前聞賊招云, ‘他道盡有之, 獨威不行於湖南, 故必要擊之.’ 如晉州之攻陷是也.”

19) 『宣祖實錄』 권87, 선조 30년(1597) 4월 21일(辛巳) 8번째 기사, “此全羅之門戶, 乃劉挺後次移駐之處, 又忠淸·京畿等, 六道之外藩也. 再進則全州, 亦有城可守, 爲全羅之堂奧, 欲保全羅, 必保南原, 如守大門, 而大兵不可不屯於此, 與全羅共扼之.”

20) 정유재란 발발 전 남원에 배치된 병력의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는 추정할 뿐이다. 『宣祖實錄』은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관군의 숫자를 700명으로 기록하였다(『宣祖實錄』 권92, 30년(1597) 9월 2일(기축) 4번째 기사). 그런데, 남원성 전투를 깊이 있게 다룬 李熙煥은 명군 3,117명, 관군 7백여 명, 의병 5~6백여 명 등 총 4,300명에서 4,4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이희환, 1983, 앞의 논문, 72~76쪽). 한편 이형석은 요동군(명나라 군사) 3천, 아군측 1천명으로 합계 4천 명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이형석, 1974, 『壬辰戰亂史』(中), 新現實社, 1008쪽), 이는 의병의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1) 『龍城誌』 권1, 序

가운데²²⁾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이 (남원의) ‘교룡(蛟龍)산성’이며, ‘교룡은 영남과 호남의 두 남(南)이 의거하는 곳으로 인후(咽喉)와 같은 곳’²³⁾ 이라는 인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다. 다시 말해, 남원은 호남과 영남의 요충지이고 불가불 지켜야만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이렇듯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병력 배치를 들여다보면,²⁵⁾ 현실 인식과 적지 않은 괴리감이 확인된다.²⁶⁾ 조경남의 『亂中雜錄』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돼 있는데, 군사 징발의 문제와 함께 병력 배치 문제가 드러난다. 호남에서 1만의 군사를 징발하여 영남에 배치하게 한 일,²⁷⁾ 남원 판관 이덕회가 부(府; 남원부)에 있는 총통 1천 자루를 대구에 가져다 바친 일²⁸⁾ 등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당시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합천에 주둔중이었고, 이원익은 선산(善山)의 금오산성(金烏山城)에 위치하였으며, 당시 도원수 권율은 성주(星州) 금산현(金山縣)에 위치하여 일본군의 공격 루트에서 벗어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사실상 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물론 명나라의 일부 병력이 전주와 남원에 배치되기는 하였지만, 그 수는 일본군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였다.³¹⁾ 더구나 당시 조선군은 남원의 험지이자 요새인 교룡산성에 의지하

22) 『龍城誌』는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성 6개를 제시하고 있다. 금성(錦城; 나주), 입암(笠巖; 장성), 금성(金城; 담양), 용성(甕城; 화순), 수인(修因; 장흥), 교룡(蛟龍; 남원)을 기록하고 그중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성이 교룡이라 하였다(『龍城誌』 권2, 舊志, 蛟龍山城, 新增 조 참조).

23) 『龍城誌』 권2, 舊志, 蛟龍山城, 新增 조 참조

24) 『龍城誌』 권2, 舊志, 蛟龍山城, 新增 조 참조

25) 『宣祖實錄』 권91, 선조 30년(1597) 8월 12일(경오) 10번째 기사; 『宣祖實錄』 권92, 선조 30년(1597) 9월 2일(기축) 4번째 기사 참조.

26) 남원성 전투 2달 전에 경상우도병사 김응서는 일본군이 전라도와 제주도를 짓밟을 것이라는 비밀 장계를 조정에 보내오기도 하였다(『宣祖實錄』 권89, 선조 30년(1597) 6월 14일(계유) 3번째 기사).

27) 『亂中雜錄』 권3, 정유년(1597) 1월 10일 기사.

28) 『亂中雜錄』 권3, 정유년(1597) 2월 기사.

29)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32쪽 참조.

30) 이 시기 전라도 지역 방위 태세의 미진함은 조경남이 기록한 『난중잡록』에서 거듭 확인된다(『亂中雜錄』 권3, 정유년 1월 10일·2월·5월·7월 11일 기사 참조). 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10;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32쪽 참조.

31) 이는 당시 선조의 인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조는 왜군이 명나라 3천 병력을 격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宣祖實錄』 권88, 선조 30년(1597)

여 왜군 방어를 계획하고 성을 중수(重修)하였으며, 주변의 읍에서 병량을 모아 수송하였던데 반해,³²⁾ 명나라 총병 양원(楊元)은 교룡산성을 버리고 평지의 남원성에 본부를 세우도록 명령하였다.³³⁾ 아무리 명나라 군대가 기병을 주로 하며 평야전에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병력과 무기의 수 등의 군세가 비슷한 상황에서일 것이다. 일본군이 호남을 목표에 두고 진격해오는 상황에서 남원성과 함께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룰 수 있는 요새인 교룡산성을 버리고 남원성을 작전 본부로 삼은 것은 큰 패착이 아닐 수 없었다.

2) 임진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의 동향

남원의 협계태씨는 선초에 이미 태응진(太應辰)을 위시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⁴⁾ 안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남원의 협계태씨 가계는 태응진의 손자 태이(太異)의 네 아들이 4개파로 분파된다. 태이는 4남 5녀를 두었는데, 4명의 아들은 각각 분파되어 파조(派祖)가 된다. 첫째 태맹인(太孟仁)은 협계태씨의 종파를 잇고, 둘째 태맹의(太孟義)는 주촌파가 되고, 셋째 태맹례(太孟禮)는 남원파(또는 명천파·관북파)가 되며, 넷째 태맹지(太孟智)는 매안파의 파조가 된다.³⁵⁾ 이들의 후손들이 임진~정유년 시기 활동한 발해인들이다.

여기에서 검토할 인물은 태색(太穡)이다. 그는 매안파 태맹지(太孟智)의 증손으로 기록돼 있다.³⁶⁾ 태색은 1558년(명종 무오)에 출생하여 1621년(광해 신유)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³⁷⁾ 그런데 태색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龍城誌』와 『湖南節義錄』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 『龍城誌』는 그가 ‘정

5월 15일(을사) 1번째 기사)

- 32) 조선의 남원 방어계획에 대해서는 이희환, 1983, 『丁酉再亂時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65~66쪽 참조. 조정남의 『난중잡록』에는 애써 중수(重修)한 교룡산성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破棄했던 것으로 보인다(『亂中雜錄』 권3, 정유년, 선조 30년(1597) 7월 조에 “罷南原蛟龍山城”).
- 33) 『宣祖實錄』 권89, 선조 30년(1597) 6월 18일(정축) 5번째 기사. 총병 양원의 남원성 보강 및 수성 준비에 관해서는 이희환, 1983, 『정유재란시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71~72·76~78쪽 참조.
- 34) 선초 태응진의 남원 정착과 가계 상황에 대해서는 박순우, 2020, 『고려 후기 발해인 세거 사례와 조선시대 ‘발해인(渤海人)’ 연구 시론: ‘족당(族黨)’의 용례와 남원지역 협계태씨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2, 268~272쪽 참조.
- 35) 이 내용은 『陝溪譜』 1856년본도 동일하다. 여기에선 1927년본을 기준으로 하였고(『陝溪譜』 권1, 中祖世系, 63面 참조), 두 본이 서로 다를 때는 추가 언급하였다.
- 36) 『湖南節義錄』 권2下, 壬亂義蹟 조 참조.
- 37) 『陝溪譜』 권1, 梅岸派 조.

유왜란'때 조(粟) 3백여곡(“三百餘斛”)을 모집하여 군량미로 보냈다고 한다.³⁸⁾ 이와 관련하여 『湖南節義錄』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태색은 임진란 때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부모가 병중이라 곧장 나아가지 못하였고, 이에 조카 태귀생과 재종질 태구, 태시경 및 서질(庶姪) 태천생 등을 불러 전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 뒤 본인은 가산을 내어 병량미 3백곡을 모아 명나라 군대를 도우며 여러 군무를 주선했다고 전한다.³⁹⁾ 즉, 『湖南節義錄』은 태색이 병량미 3백곡을 모아 군사를 지원한 시점을 임진왜란 시기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湖南節義錄』이 임진-정유년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壬辰義蹟’조에 기록하였다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고려할 때,⁴⁰⁾ 태색이 3백곡의 병량미를 지원한 시점이 『용성지』 기록에 따라 정유년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후 태색의 병량미 지원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자 선조는 그에게 군자감 참봉직을 제수하였다는 사실을 두 자료 모두 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두 자료에는 태색이 군자감 참봉직에 제수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협계태씨 두 본의 족보에는 그가 선조 계사년, 즉 1593년에 “절충장군 행 군자참봉”에 제수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족보의 기록이 맞다면 참봉직 제수 시점에서 역으로 계산하면 그가 병량미 3백곡을 바쳐 명나라 군사를 도운 것은 임진년, 즉 1592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태색이 가산을 털어 명나라 군대를 도우므로, 명나라 장수 유정(劉挺)이 그에게 옥으로 만든 촛대[玉燭臺]와 대모반(玳瑁盤)을 상으로 주었다고 한다.⁴¹⁾

명나라 장수 사천총병(四川總兵) 유정(劉挺)이 소모병(召募兵) 5천 명을 인솔해 조선에 들어온 시점은 임진년 이듬해인 1593년 5월 1일(갑인)인데, 그가 처음으로 진을 친 지역은 성주(星州)였다.⁴²⁾ 그는 이후 일본과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경상도 등지(대구·합천·상주)에 주둔하였고,⁴³⁾ 명나라 조

38) 『龍城誌』 권6, 人物 中, 孝子·新增, 太穉조 참조.

39) 『湖南節義錄』 권2, 下, I 임진란 때의 의적(壬辰義蹟), 한 도에서 거의한 제공의 사실(一道舉義諸公事實), 太穉조 참조.

40)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전북인의 창의활동 - 《호남절의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 192~198쪽 참조(『전환기 호남지역사 연구』, 나라, 1997에 재수록); 노기춘, 2009, 『호남절의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41) 『湖南節義錄』 권2, 下, I 임진란 때의 의적(壬辰義蹟), 한 도에서 거의한 제공의 사실(一道舉義諸公事實), 太穉조 참조.

42) 『宣祖修正實錄』 권27, 선조 26년(1593) 5월 1일(갑인) 1번째 기사

43) 『宣祖實錄』 권40, 선조 26년(1593) 7월 10일(임술) 6번째 기사; 『宣祖實錄』 권41, 선조 26년(1593) 8월 1일(임오) 8번째 기사; 『宣祖實錄』 권42, 선조 26년(1593) 9월 6일(정

정의 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원에서 3개월을 지체하며 형세를 관망하다가⁴⁴⁾ 1594년 9월에야 중국으로 돌아갔다.⁴⁵⁾ 이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이듬해인 1598년 5월 16일(경자)에 의주에 도착하였고,⁴⁶⁾ 6월 18일(신미)에 상이 모화관에 나아가 영접하였다.⁴⁷⁾ 정유재란시 유정이 남원성에 잠시 머물렀던 시점은 1598년 9월 7일(기축)이고,⁴⁸⁾ 9월 20일에는 예교(曳橋; 즉 순천)에서 일본군과 맞싸 싸웠으므로,⁴⁹⁾ 남원성 전투와는 전혀 연관이 없을뿐더러 정유재란시 남원에 머문 시간도 극히 짧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유정이 남원에 머물렀던 시기는 임진~계사년 초반의 격렬한 전투가 강화 협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1594년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이다. 따라서 태색이 명나라군에 병량을 지원했다면, 유정이 남원에 머물렀던 시기여야 하며, 그렇다면 1594년 5월에서 7월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그가 군자감 참봉직에 제수된 시점은 족보에 기록된 1593년이 아니라 1594년 7월 이후여야 한다. 다시 말해, 『龍城誌』와 가계의 족보 기록은 서로 상충하는 기록이 확인되기에, 현재로서는 실록의 기록에 의지해 태색의 병량미 지원 시점(임진년)과 군자감 참봉 시점(1594.7.이후)을 추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색은 임진년 전쟁이 발발하자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부모가 병중이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대신 그는 조카 태귀생, 재종질 태구, 태시경 및 서질 태천생 등을 전장으로 나아가게 하고,⁵¹⁾ 자신은 가산을 내어 병량미 300곡을 명나라 군대에 지원하였다. 전쟁과 함께 조선을 휩쓴 1593~1594년의 계갑대기근으로⁵²⁾ 조선의 식량 사정은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었으므로⁵³⁾ 유정이

사) 8번째 기사 참조.

44) 『宣祖實錄』 권51, 선조 27년(1594) 5월 15일(임진) 1번째 기사

45) 『宣祖實錄』 권55, 선조 27년(1594) 9월 11일(병술) 2번째 기사

46) 『宣祖實錄』 권100, 선조 31년(1598) 5월 16일(경자) 3번째 기사

47) 『宣祖實錄』 권101, 선조 31년(1598) 6월 18일(신미) 1번째 기사

48) 『宣祖實錄』 권104, 선조 31년(1598) 9월 7일(기축) 4번째 기사

49) 『宣祖實錄』 권104, 선조 31년(1598) 9월 24일(병오) 5번째 기사

50) 태색이 병량미 300곡을 지원한 시점을 정유왜란 때로 기록한 『龍城誌』의 기록은 오기로 보인다. 여기에선 『湖南節義錄』의 기록에 따라 태색의 병량미 지원 시점을 임진년 전쟁 기간으로 추정한다.

51) ‘조카 태귀생, 재종질 태구, 태시경 및 서질 태천생 등을 전장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기록에 대한 검토는 2장 3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52) 1593~1594년의 계갑대기근에 대해서는 김성우, 2020,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 -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참조.

53) 1594년 김덕령이 호남 의병을 이끌던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하태규, 2008, 『임란기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추이』 『전북사학』

태색의 병량미 지원을 고마워하고 그에게 옥축대와 대모반을 상으로 내린게 아니었을까. 이에 선조 역시 태색에게 군자감 참봉직을 제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정유년 시기 남원지역 발해인의 의병 활동

임진년(1592) 4월 전쟁 발발 이후 1년 3개월의 격렬한 전투가 강화 협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⁵⁴⁾ 1597년 1월 14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에 따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제1군이 울산의 서생포(西生浦)에 상륙하면서 전황이 급변하였다.⁵⁵⁾ 정유재란 초기 화력을 호남에 집중한 일본군의 공격에 호남의 주현은 속절없이 무너졌는데,⁵⁶⁾ 전열을 정비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의 반격이 본격화하는 9월 하순경부터는 전세가 변하면서 일본군이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지역으로 퇴각하기 시작한다.⁵⁷⁾

거듭 말하지만, 임진년 전쟁 발발 이후 5년의 전쟁에서 호남이 국가 방위의 보위가 됐던 만큼 호남의 인력과 물력은 모두 고갈된 상태였다.⁵⁸⁾ 그런 상황에서 호남을 목표에 둔 정유재란이 일어났으니 전라도 지역에서의 의병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임진년 당시 호남 지역 의병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과 달리 (기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유재란기 호남 의병에 관한 연구가 적은 것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⁵⁹⁾ 실제로 당시 전라도에서는 의

32, 58쪽 참조.

54)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의 강화 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며,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라도와 충청도가 온전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유재란 발발 이전부터 일본군이 조선을 재침하면 전라도와 충청도를 공격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宣祖實錄』 권89, 선조 30년(1597) 6월 14일(계유) 6번째 기사).

55) 정유재란 발발 이후부터 이듬해 11월 24일부터 일본군이 부산에서 퇴각하기까지의 상황, 일본군의 호남 공략과 조·명 연합군의 대응 양상에 대해서는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31~36쪽 참조.

56) 남원과 전주성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10, 104~107쪽 참조.

57) 조명연합군의 반격과 일본군의 퇴각 시점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일본군의 정확한 철병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수가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역사학연구』 30, 2007) 35쪽 각주 13번에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58) 선조가 신하들과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덕형이 (호남은) ‘수년 동안 요역(徭役)이 번거롭고 무거웠으므로 인심이 평상시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대목에서 당시 호남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宣祖實錄』 권82, 선조 29년(1596) 11월(기해) 1번째 기사, “上曰, ‘賊兵若再動, 必先犯湖南. 若爾則必由沿海, 豈不大可憂乎?’ …(중략)… 德馨曰, ‘賊若長驅, 必以輕兵, 直進據湖南. 湖南, 精兵多在之地, 且城厚完, 第數年間, 徭役煩重, 人心殊常. 脫若賊來, 必湖南不失, 然後可以保國脈矣.’”).

병을 기피하는 모습까지 관찰될 정도였다.⁶⁰⁾ 더구나 정유재란을 앞두고 호남인들이 김덕령의 죽음을 원통하게 생각했다는 대목에서는 전라도민의 민심이 반을 엿볼 수 있다.⁶¹⁾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한 후 약탈과 방화, 살육을 일삼으면서도⁶²⁾ 한편으로는 전라도민을 회유·포섭하려 하였고, 회유에 응하지 않으면 찾아내어 주살하는⁶³⁾ 등의 악행을 저지르니, 호남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에 회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기나긴 전쟁으로 호남지역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더불어 정치적 상황, 일본군의 잔악무도한 악행으로 도민이 의병을 꺼리는 데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쟁이라는 목전의 위기 앞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⁶⁴⁾ 정유년 9월 하순에 이르러 전라도 여러 지역에서

59) 정유재란기 의병을 다룬 논고는 다음과 같다. 이희환, 1983, 「정유재란시의 남원성 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조원래, 1983, 「홍덕남당창의와 채씨일문의 의병활동」 『한국사연구』 42; 조원래, 1990, 「정유재란과 石柱關 의병항쟁」 『구례 石柱關 칠의사』, 구례군; 조원래, 1994, 「정유재란과 호남의병」 『전남사학』 8; 하태규, 1999, 「丁酉再亂期 全羅道 지방의 義兵活動에 대하여 全羅道 北部 地方의 義兵活動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10;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60) 『宣祖實錄』 권92, 선조 30년(1597) 9월 13일(경자) 6번째 기사에 “상이 이르기를, ‘… 지금은 창의(倡義)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가?’ 하니 권율이 아뢰기를, ‘사람들의 생각에 왜적이 재차 쳐들어 왔으니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하였다.” 또 『宣祖實錄』 권94, 선조 30년(1597) 11월 2일(기축) 2번째 기사에, “정언 이이첨(李爾瞻)이 와서 아뢰기를, ‘호남은 병화를 입은 자가 이미 여러 달인데도 아직 창의(倡義) 군사를 모아 국가를 위하여 적을 토벌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근년 이래 도내의 사인(士人)이 전혀 등용되지 않아서 인심의 의혹과 사기의 추락을 불러일으킨 것이 많습니다. …’ 라는 기록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61) 『宣祖修正實錄』 권30, 선조 29년(1596) 8월 1일(병신) 1번째 기사에 “김덕령이 옥에서 고문으로 죽었다. … 남도의 군민들은 항상 그에게 기대고 그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억울하게 죽게 되자 소문을 들은 자 모두 원통하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였다. 그때부터 남쪽 사민(士民)들은 김덕령의 일을 경계하여 용력(勇力)이 있는 자는 모두 숨어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라고 한다.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30쪽 참조.

62) 전라도 대부분을 장악한 일본군이 저지른 잔학상은 일본인 승려 慶念의 『朝鮮日日記』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그는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아수라 지옥 같은 모습”이라 기록하였다(기타지마 만지[北島萬次], 1982, 『朝鮮日日記·高麗日記·秀吉의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東京:そしえて, 298~308쪽;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35쪽 재인용.

63) 전라도 여러 고을의 인민들이 목숨을 부지하려 일본군에 붙는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宣祖實錄』 권94, 선조 30년(1597) 11월 12일(계해) 4번째 기사; 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10, 108쪽 참고.

의병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⁶⁵⁾ 정유재란기 의병들의 대다수는 조·명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일본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할 즈음에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유재란 개전 초반에 일어난 남원성 방어 전투에서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목된다.

(1) 태구(太媯)-태시경(太時慶) 부자

선초 이래 남원에 세거해온 협계태씨 발해인들이 임진-정유왜란 시기에 활동했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되었다.⁶⁶⁾ 그러나 그들의 구체적 행적을 전하는 자료가 빈약하여 선행 연구들이 그들의 참여만을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선초 이래 남원 일대에서 계대해 온 협계태씨 발해인들이 정유왜란기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태구(太媯)를 살펴보자. 태구의 자는 선충(善忠), 호는 매계(梅溪), 생년은 미상이며, 정유 왜란 때 남원성에서 순절하였다.⁶⁷⁾ 이상의 기록은 족보에 근거한 것인데, 『湖南節義錄』에는 그가 말타기와 활을 잘 쏘았으며, 임진란 때 큰아버지 주부 태귀생(太貴生)을 따라 아들 태시경(太時慶)과 함께 창의하여 병량미를 모았다고 기록돼 있다. 정유년 재침 때는 전라병사 이복남의 종사관이 되어 활동하다 남원성이 함락되어 적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왜추(倭酋)”가 그를 회유하므로 ‘나는 동방의 충의지사(忠義之士)이다. 죽을지언정 어찌 해외의 추악한 무리를 따르겠는가?’라며 대꾸하자 왜군이 양쪽 귀를 잘랐고, 마침내 성중에서 순절하였다. 후에 참봉으로 증직되었으며,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

64) 이때의 의병이 진정한 소구의병(掃寇義兵)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구의병에 대해서는 허선도, 1983, 『임진왜란의 극복과 嶺右義兵 —그 전략적 의의를 중심으로—』 『진주문화』 4; 허선도, 1992 『壬辰倭亂史論 —壬亂史의 올바른 認識—』 『한국사론』 22(국사편찬위원회), 225~226쪽 참조. 이외에도 조원래는 ‘의병’과 ‘항병’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조원래, 1985, 『임란초기 전라도 의병의 성격』 『사향』 2, 공주대 역사교육과, 81~82쪽).

65) 정유재란기 호남지역에서 창 의한 의병에 대해서는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38~42쪽 참조.

66) 이희환은 남원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순절한 49명의 일람표에 협계태씨 발해인들을 정리한 바 있다(이희환, 1983, 『정유재란시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74~75쪽 참조). 하태규는 정유재란기 태구-태시경 부자와 태귀생-태천생 형제를 1문단으로 다룬 바 있고(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10, 114쪽), 그 후 김동수 역시 태구-태시경 부자와 태귀생-태천생 형제를 언급한 바 있다(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64~65쪽 참조). 그러나 이들 모두 협계태씨 발해인의 행적을 자세하게 다룬 건 아니다.

67) 『陝溪太氏族譜』 권1, 宗派

있음을 전하고 있다.⁶⁸⁾

태구의 아들 태시경(太時慶)은 자가 영중(榮仲), 호는 경재(敬齋), 생년은 미상이며, 정유년 재침 때 아버지와 함께 남원성에서 순절하였다.⁶⁹⁾ 태구가 전라병사 이복남의 종사관으로 왜군을 맞아 분전했다면, 아들 태시경은 남원부 별감으로 의사(義士) 오흥업(吳興業)과 협력하여 성을 수비하였다.⁷⁰⁾ 아버지 태구가 적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복수를 맹세하고 적과 싸우다 끝내 순절하였다. 태시경 역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2) 태귀생(太貴生)-태천생(太賤生) 형제

태귀생의 생년은 미상이며⁷¹⁾ 1597년 남원성이 함락되던 날 순절하였다. 태귀생의 자는 여인(汝仁), 호는 정기재(正己齋)이며, 명종 을묘년(1555)에 무과에 급제하고 주부(主簿)를 지냈다. 정유년 재침 때⁷²⁾ 서제(庶弟) 태천생과 남원성 전투에 참여하였고, 성이 함락되는 날 동생과 함께 순절하였다. 그의 죽음에 활계 이대유와 만헌 정엄이 탄식하였다고 족보는 전하고 있다.⁷³⁾ 그의 행적은 『湖南節義錄』에 좀더 자세하게 전하는데, 그의 아버지 태윤민(太潤民)은 수문장(守門將)을 지냈다고 한다. (아버지의 영향이었던지) 태귀생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고, 담력이 좋았다고 하며, 그의 무과 급제 사실과 주부에 제수된 사실은 족보의 기록과 같다. 임진란 때 서제(庶弟) 태천생(太賤生), 아들 태상문(太尙文)과 창의 하여 병랑미를 모았고, 정유 재침 때는 종족 수십명과 가동(家僮) 수백 명을 이끌고 남원성에 들어와 병사 이복남과 함께 성을 수비하였다. 갑자기 날아온 탄환에 맞아 죽었으며, 서제 태천생 또한 같은 날

68)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媯 조 참조. 가계의 족보(1928年刊)도 태구가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됐음을 기록하고 있다(『陝溪太氏族譜』 권1, 『南原八忠事實』, 太媯 조 참조).

69) 『陝溪太氏族譜』 권1, 宗派

70)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時慶 조 참조

71) 태귀생 기록과 관련하여 1856年刊 족보에는 그가 嘉靖(명 세종의 연호) 을묘(1555)에 무과에 급제하고 주부에 제수된 사실만 전하는데, 1928年刊 족보에는 그의 생년이 ‘成宗壬寅三月三日生’, 즉 1482년 3월 3일로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태귀생의 卒年이 1597년 남원성이 함락할 때이므로, 그가 115년을 살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족보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2) 두 本의 족보는 그가 임진란 때 庶弟 賤生과 같은 날 순절했다고 전하지만, ‘임진-정유년 전쟁’을 통칭하여 ‘임진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湖南節義錄』 역시 ‘壬辰義蹟’조에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을 검토해보면 임진년과 정유년 시기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제 모두 정유 재침 때 남원성이 함락되던 날 순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73) 『陝溪太氏族譜』 권1, 朱村派 참조. 『湖南節義錄』에는 태귀생이 ‘병사(兵使) 이공(李公; 전라병사 이복남)과 함께 힘을 다해 적을 막았다’고 기록돼 있다.

순절하였다.⁷⁴⁾

태천생의 자는 내인(乃仁)이며, 명종 임자(1552)에 출생하여 1597년 남원성 함락 때 순절하였다. 태천생의 행적도 『湖南節義錄』에 기록됐는데, 그가 일찍이 궁마(弓馬)를 익혔다고 한다. 수문장을 지낸 바 있는 아버지 태윤민의 영향으로 형 태귀생과 함께 궁마를 익혔던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란 때의 창의 사실과 정유 재침 때에도 기의하여 남원성이 함락될 때 병사 이복남과 같은 날 적에게 살해됐음을 전하고 있다.⁷⁵⁾

3. 난중일기에 보이는 발해인

일본과의 강화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1597년 5월에 이르면 일본의 대규모 병력이 경상도 해안지대에 집결하였다. 정유재란은 호남의 완전한 장악, 또는 임진년 전쟁의 복수전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국가 보위에 매우 중요했던 남원에 거주한 발해인들 역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은 임진년에 이어 정유년 남원성 전투에서 적지 않은 발해인들이 순절하고, 후에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는 등 그 공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이순신 위주의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자 몇몇 연구자가 이순신 막하 인물에 주목하였다.⁷⁶⁾ 그럼에도 이순신 휘하의 인물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⁷⁷⁾ 이순신 휘하의 인물 관련 기록이 소략하기도 하거니와 그마저도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어 개별 연구자가 모든 문헌을 섭렵하여

74)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貴生 조 참조

75) 『湖南節義錄』 권3上, 壬辰義蹟, 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太賤生 조 참조

76) 몇몇 연구자가 이순신에게 치중된 연구를 극복하기 위해 이순신의 막하 인물에 주목하였다. 김영숙, 1992, 「이충무공 막하인물 분석」 『충무공 이순신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정현, 1993, 「임진왜란과 전남지방의 의병활동」 『전라남도지』 4; 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10; 조원래, 2001,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황병성, 2012, 「정유재란기 이순신의 전략과 의병막하인물」 『역사학연구』 46.

77) 이순신의 ‘막하’ 인물이란 이순신 휘하의 무관과 종사관(從事官)을 가리키지만(협의의 개념), 『湖南節義錄』이 기재한 방식처럼 ‘參佐·諸公’과 같이 의병 출신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광의의 개념). 이에 대해서는 김영숙, 1992, 「이충무공 막하인물 분석」 『충무공 이순신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병성, 2012, 「정유재란기 이순신의 전략과 의병막하인물」 『역사학연구』 46, 68~69쪽 참조.

해당 인물의 기록만을 추출, 타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에는 많은 물리적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이순신 휘하의 인물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규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⁷⁸⁾ 그런데 이순신이 남긴 『亂中日記』에 발해인이 기록돼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서 살펴볼 인물은 태구련(太九連)으로 기록된 발해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태씨는 위낙에 희귀 성씨라 『亂中日記』에 등장하는 태구련도 발해인으로 추정된다. 태구련은 『亂中日記』 을미일기에 1595년 7월 14일(을유) 기사와⁷⁹⁾ 같은 달 21일(임진) 기사에서 확인된다.⁸⁰⁾ 현재 협계태씨는 전북 일대에 많은 인원이 세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순태씨는 경상도 지역에서 계대해 오고 있는데, 이 두 태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구련의 흔적을 찾기 위해 두 태씨의 족보를 검토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⁸¹⁾

그런데 최근에 문화재청 산하 현충사관리소에서 ‘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 개최를 위해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이란 제목의 특별 도록을 제작한 바 있다.⁸²⁾ 해당 도록을 입수하여 검토하던 중 충무공 장검의 스펀에 “갑오년 4월 태귀련(太貴連)과 이무생이 만들다.”라는 명문을 확인하였다.⁸³⁾ 『亂中日記』 을미년에 보이는 태구련(太九連)과 갑오년(1594)에 이충무공의 장검을 만들었다는 태귀련(太貴連)의 이름이 서로 낯설지 않아 보인다. 『亂中日記』 을미년(1595) 7월 21일(임진) 기사에는 ‘식후에 태구련(太九連)과 언복(彦福)이 만든 환도(還刀)를 충청 수사(선거이)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 자루씩 나눠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⁸⁴⁾

78) 이와 함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湖南節義錄』의 ‘殉節·叁佐 諸公’과 『이충무공전서』의 ‘충무공 幕下 여러 장수들의 약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300여명에 이르며, 이들 중 정유재란기에 한정하여도 12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황병성, 2012, 「정유재란기 이순신의 전략과 의병막하인물」 『역사학연구』 46, 69쪽 참조.

79) 본고는 최근의 연구성과와 새롭게 발굴한 문헌까지 포함하여 노승석이 역주, 출판한 『(신완역) 亂中日記 校註本』(여해, 2021)을 참고하였다.

80)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7월 14일(을유), “李祥緣·太九連·孔太元等入來.”·21일(임진), “食後, 太九連·彦福所造環刀, 忠清水使·兩助防將處, 各一柄分送.”; 노승석 역주, 2021, 『(신완역) 亂中日記 校註本』, 여해, 247·249쪽 참조.

81) 『永順太氏族譜』는 1991년 大邱重刊 本을 검토하였다.

82)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4,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가삼기획.

83)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4,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가삼기획, 72쪽에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촬영한 충무공 장검이 실려 있고, 스펀에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 이란 명문이 남아 있다. 조선사편수회의 촬영 이후 동아일보에서 충무공 유물을 배관(拜觀)하고 남긴 기사도 확인된다. 『동아일보』 1931년 5월 13일에 ‘忠武公의 遺物을 拜觀하고’란 기사가 실려 있다(『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가삼기획, 123쪽 참조).

84) 노승석 역주, 2021, 『(신완역) 亂中日記 校註本』, 여해, 249쪽 참조. 노승석 역시 태구련

해당 도록 전체를 검토한 결과 문화재청 산하 현충사관리소는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태씨 문중 후손의 증언을 채록해 실었는데, 어느 태씨 문중의 후손을 인터뷰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신지 않아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했다.⁸⁵⁾ 후손들의 해당 구술 자체에 모순되는 점이 있어 내용 그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귀련이 이충무공의 장검을 이무생과 만든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순신의 『亂中日記』에는 “太九連·彦福所造環刀”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순신의 『亂中日記』가 세월이 꽤 흐르고 후대에 편찬되면서 잘못 쓰인 글자가 아닌가 생각된다.⁸⁶⁾ 이순신 장검의 습베에 명확하게 “太貴連”이라 명문으로 남아 있으므로, 『亂中日記』 속 태구련은 태귀련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의문은 태귀련과 함께 환도를 만들었다고 기록된 언복(彦福)은 누구였을까. 해당 기사 전후로 기록된 경향을 보면 이순신은 직책을 명확하게 기록하거나, 이름을 성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언복의 경우 태구련 다음에 기록했는데, 성은 생략하고 이름만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성이 없는 천한 인물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한편으로는 태구련과 언복이 같은 태씨였기에 언복의 성씨는 생략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⁸⁷⁾

태구련과 언복이 환도(環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亂中日記』의 기록과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는 이충무공 장검의 사례에서 조선 중기

과 태귀련을 동일인으로 정리하였다.

85) 여기에 태씨 문중 후손들의 증언을 소개하도록 한다. “…(상략)… 두 사람이 충무공의 칼을 만들기까지의 슬픈 사연이 지금도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태귀운(태귀련의 오기)과 이무생은 원래 조선 사람, 임진왜란에 왜구들의 연안 노략질 때 포로로 붙들려 일본에 끌려갔다. 그 당시 일본검으로 유명한 비젠(備前, 지금의 강산)에서 풀무질과 매질을 하면서 10년 동안 도검술을 배웠다. 임진란이 터지자 왜병은 이들 조선 사람을 안내인 겸 통역으로 데리고 조선 정벌의 길에 올랐다. 슬픈 귀국이였다. 싸움터에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왜병들과 함께 충무공의 군사에게 포로가 되었다. 왜병 속에 조선인이 있음을 알게 된 충무공은 격분하여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를 당장 참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충무공 앞에 엎드려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 그들은 10년 전 왜구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충무공은 두 사람에게 벌을 주는 대신 진중에서 칼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지금껏 배운 모든 기량을 다해 장검 두 자루를 만들어 바쳤는데 그 칼이 바로 보검이라는 얘기. …(하략)…”(이석재, 2014, 『이충무공 장검 분석: 성웅의 칼, 그 속설과 실체』,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가삼기획, 82쪽 재인용).

86) 이에 대해 학술회의 당시 토론자는 ‘오기’ 보다는 ‘字’와 ‘諱’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필자 역시 충분히 공감하지만, 둘 중의 하나는 ‘初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87)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며, 문제를 제기해 두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미증유의 국난시기에 발해인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태귀련과 태구련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스스로 태귀련이라 새겨 넣은 것으로 볼 때 태귀련으로 불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타깝게도 태귀련이 남원의 협계태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지만,⁸⁸⁾ 임진~정유 재침 시기에 발해인 태씨가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동했던 사실은 분명하다. 임진~정유 재침 시기에 활동한 발해인 태씨가 『난중일기』에 또 확인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4. 몇 가지 의문: 태색(太穡)의 행적과 『亂中日記』의 태귀생 기록의 문제

먼저 태색의 기록에 관한 의문이다. 필자는 앞서 태색이 명나라 군사에 병량미 300곡의 지원 시점을 명나라 장수 유정이 남원에 머물렀던 1594년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으로 추정하는 바 있다. 명나라 군사에 병량미를 지원한 태색의 소식을 접한 선조가 그에게 “절충장군 행 군자참봉”직을 내려주었으며, 그 시점은 족보에 기록된 1593년이 아니라 1594년 7월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龍城誌』에서는 태색이 병량을 모아 군량미로 보낸 시점을 ‘정유왜란’이라 기록하고 있어, 태색의 행적 규명에 혼란을 준다. 『湖南節義錄』에 기록된 태씨 일가의 기록을 검토해보면, 이들 모두 『壬辰義蹟-李兵使福男同殉諸公事實』 조에 기록돼 있지만, 실제 내용을 검토해보면 ‘임진년의 사실’과 ‘정유년의 사실’을 각기 순서에 따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귀생-태천생 형제의 기록과 태구의 기록도 임진년의 사실과 정유년의 사실을 분리해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태색은 임진년 당시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부모의 병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조카 태귀생, 재종질 태구, 태시경, 서질(庶姪) 태천생 등에게 전장으로 나아가게 했는데, 이때 이들은 주로 의병으로 참여해 직접 전투에 나서기보다 후방에서 병량미를 모아(태귀생·태구의 기록) 군사를 지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⁸⁹⁾

88) 임진년 전쟁 이후 이순신의 활동 영역이 서·남해 연안과 호남을 주 무대로 삼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남지역에서 오랜 시간 계대해온 협계태씨의 후손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89) 그런 이유로 선학들의 연구에서 주로 언급된 임진년 호남지역 의병 활동에선 이들 일가 구성원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후방에서 병량미를 모으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기에,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정유년 재침 때 다시 남원성 固守를 위해 일가가 나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협계태씨 일문의 활동은 정유년 재침 때에도 이어진다. 태색을 제외하면 태구-태시경 부자, 태귀생-태천생 형제는 모두 정유년 남원성 전투에서 모두 순절하였다. 가계의 족보와 『湖南節義錄』이 공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태색의 경우 여러 기록이 충돌하고 있어 정유년 남원성 전투에 직접 참여했는지 의문이다. 『湖南節義錄』 태색 조에는 그의 가계를 ‘一門五絶’이라 불렀다고 하여 남원성 함락시 태색이 순절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두 본의 족보 모두 그의 사망 시점을 광해군 신유년(1621) 11월 5일로 기록하고 있다. 족보에 근거해 그의 사망 시점을 1621년으로 삼으면 ‘一門五絶’이라 기록한 『湖南節義錄』의 기록은 과장된 기록이 된다.⁹⁰⁾

다음은 태귀생에 관한 기록의 문제이다. 남원의 협계태씨 태귀생과 한자까지 같은 동명의 태귀생이 이순신의 『亂中日記』에 등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⁹¹⁾ 『亂中日記』에 기록된 태귀생이 남원성 함락시 순절했다는 태귀생과 동명이인의 인물인지 검토해보자.⁹²⁾

『亂中日記』 「정유일기 I」⁹³⁾ 8월 16일(갑술)에 ‘궁장(弓匠) 지이(智伊)와 태귀생(太貴生), 선의(先衣), 대남(大男) 등이 들어왔다.’고 기록돼 있으며, 「정유일기 II」 8월 16일에 ‘궁인(弓人) 이지(李智)와 태귀생(太貴生)이 와서 만나고, 선의(先衣), 대남(大男)도 왔다.’고 기록돼 있어 두 기록의 차이가 거의 없다.⁹⁴⁾ 그로부터 2달 후에 태귀생이 한 번 더 확인되는데 ‘...정탐인(偵探人) 이순, 박

90) 태색 이외의 또 다른 협계태씨 인물이 남원성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열려있기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지적해두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다만 족보 기록의 곳곳에 적지 않은 오기가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91) 이 문제에 대해 김동수는 두 인물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문제로서 제기’한 바 있다(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 65쪽 각주 103번 참조).

92) 여기에서는 이순신의 『亂中日記』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노승석 역주 『(신완역) 亂中日記 校註本』(여해, 2021)을 참고하였다. 『(신완역) 亂中日記 校註本』의 원문은 책 후반부에 실려 있다.

93) 이순신의 「정유일기 I」은 이순신이 ‘왕명거역죄’로 파직되고, 서울로 압송되어 3월 4일 투옥되었다가, 정탁, 이원익, 이항복 등 대신들의 노력으로 4월 1일 석방된 직후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일기이다. 그리하여 「정유일기 I」은 1597년 4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기록되었다. 반면, 「정유일기 II」는 8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록된 일기이다. 이로 인해 두 일기는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66일간의 일기가 중복돼 있다. 이상은 노승석 역주, 2021, 『(신완역) 亂中日記 校註本』, 여해, 334·389쪽 참조.

94) “午後, 弓匠智伊及太貴生·先衣·大男等入來, 金希邦·金鵬萬來.” “弓人李智及太貴生見. 先衣·大男亦來, 金希方·金鵬萬追到.”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378·393쪽 참조. 사실상 이 두 기사는 하나의 기사로 보아야 한다. 문헌상으로는 「정유일기」 I 과 II로 나뉘어 있으나, 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66일간의 일기가 중복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389쪽 참조.

담동, 박수환, 태귀생(太貴生)을 해남으로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⁹⁵⁾ 어떤 이 유인지 알 수 없지만, 정유년 8월 16일 남원성이 일본군에 함락될 때 남원성에서 일족과 함께 순절한 태귀생(太貴生)과 한자가 똑같다.

앞서 검토한 이순신 장군의 장검 습배에 새겨진 “造太貴連李茂生作”을 근거로 태귀련(太貴連)이 태구련(太九連)과 동일인이며 태귀련으로 통칭해 불러야 맞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유년(1597)에 기록된 ‘偵探人 태귀생’이 이순신 장군의 칼을 제작한 태귀련(太貴連)과는 어떤 관계였을지가 궁금하다. 그런데 정유년에 기록된 발해 후손의 태귀생은 ‘궁장(弓匠) 또는 궁인(弓人·8월)’으로 기록하거나 ‘정탐인(偵探人·10월)’으로 기록돼 있다. 태귀생이 이순신 장군의 막하로 정탐의 임무를 수행했다면, 그는 분명 날래고, 지리에도 밝았으며,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여 이순신 장군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을 것이다.⁹⁶⁾ 그가 활을 만드는 전문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정탐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무예와 식견을 소유한 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순신의 장군의 장검 습배에 새겨진 태귀련(太貴連)과 정탐인으로 활동한 태귀생(太貴生)의 이름은 서로 낯설지 않아 동일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동일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세 명의 인물이 동일인이라면 이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을텐데, 칼을 만드는 장인이면서, 동시에 활을 잘 만들고, 다룰 줄 아는 장인이며, 또 이순신의 막하에서 정탐인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태구련(太九連)과 태귀련(太貴連)을 동일인으로 추정하는 데 문제는 없으며, 태귀련(太貴連)으로 통칭해 부르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귀련과 태귀생을 동일인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 칼을 만드는 장인이면서, 활을 만드는 장인이며, 동시에 정탐의 임무를 한 사람이 수행했다고 추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유년 남원성 함락시 순절했다는 태귀생과도 연관성이 없는 동명이인의 발해 후손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순신의 막하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발해인 태씨가 2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과 어떤 관계에

95) “偵探人李順·朴淡同·朴守選·太貴生送于海南.” 노승석 역주, 2021, 앞의 책, 403쪽 참조.

96) 한편으로는 이순신이 신뢰할 만한 인물의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바 이순신의 일기가 후대에 정리되면서 잘못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순신 장군이 착각했을 경우, 또는 태귀련(태구련)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이 서·남해 연안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실과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이 전라북도 일대에서 세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역시 전북지역에서 거주하던 발해 후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맺음말

이 글은 그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이 임진~정유년 시기 어떠한 행적들을 보였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이 선학들의 연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바는 아니지만, 최대 한 문단을 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임진년 전쟁 발발 이후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들의 행적을 정리해보자.

2장에서는 임진년 전쟁과 정유년 재침 기간에 발해인들의 활동상을 정리하였다. 임진년 전쟁이 발발하자 선조 이래 남원에서 세거해온 협계태씨 발해인들은 전투에 직접 나서기보다 병량을 모으고 운송하는 후방에서의 지원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당시 태색의 부모가 병중이었기에, 의병에 가담하여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보다 후방에서 군사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일가는 가산을 내어 병량미 300곡을 마련하여 기근이 극심한 시기에 명나라 유정의 군대를 지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임진년 전쟁시기 후방에서 의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정유재란이 벌어졌을 때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유년 재침 때 협계태씨 일문은 다시 한번 의병에 기꺼이 참여하여 남원성 고수를 위해 성으로 들어왔다. 태구는 전라병사 이복남의 종사관으로 왜군을 맞아 싸웠고, 태시경은 남원부 별감으로 의사(義士) 오흥업(吳興業)과 함께 성을 수비하였다. 태귀생-태천생 형제, 그리고 태귀생의 아들 태상문까지 남원성 고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이들 가계는 남원성 전투 당시 ‘종족 수십 명과 가동(家僮) 수백’을 거느리고 와 남원성 수비에 전력을 다하였다. 정유년 남원성 전투에 지역의 많은 유력 가문들이 참여하면서 적지 않은 종족과 가동을 동원했는데, 협계태씨 일가보다 많은 수가 참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⁹⁷⁾

다음 3장에서는 『亂中日記』 보이는 태귀련(太九連)과 이순신의 장검의 습베에 새겨진 “태귀련(太貴連)”이 동일인물임을 정리하였다. 태귀련이 이순신 장군의 습베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다는 점에서 태귀련으로 통일해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과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임진년 전쟁 발발 이후 이순신 장군의 주 활동 무대가 서·남해 연안으로 호남지역 일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선초 이래 남원에서 시작하여 장수, 임실, 임피 등지로 세거지를 넓혀온 협계태씨 발해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앞의 논의에서 가장 모호한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태색의 행적과 관련한 문제이며, 둘째는 『亂中日記』에 보이는 태귀생이 정유년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태귀생과 어떤 관계였을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임진년 전쟁시 태색은 부모의 상중에 있었으므로 전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가 사람들을 불러 전장에 나아가게 하고, 자신은 가산을 내어 병량을 마련하여 군사를 지원하였다. 그가 가산을 내어 명나라 유정의 군사에 군량을 지원한 시점은 유정이 남원에 머물던 시점(1594.5~7.)인데, 이때는 기근이 극심한 시기였기에 명나라 장수 유정이 그에게 옥축대와 대모반을 상으로 내려던 것이다. 그 때문에 선조로부터 군자감 참봉직을 제수 받은 시점은 1594년 7월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망 시점에 관한 의문이다. 『湖南節義錄』은 그가 네 명의 조카들과 남원성에서 함께 순절한 것으로 기록하고, ‘一門五絶’이라 기록하였는데, 두 본의 족보는 그의 사망을 1621년 11월 5일로 기록하고 있다. 두 기록 중 하나는 오기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亂中日記』 속 태귀생과 정유년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태귀생은 동명이인일까. 결론적으로 필자는 『亂中日記』 속 태귀생은 남원성 전투 당시 순절한 태귀생과는 어떤 연관성도 확인하지 못했다. 『亂中日記』 속 태귀생(太貴生)이 ‘弓匠·弓人·偵探人’으로 묘사됐다는 점에서 이순신 장검의 습베에 새겨진 명문 태귀련(太貴連)과는 또 다른 인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순신의 휘하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발해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남원시 만인의충에 모셔진 위패는 모두 52명이다. 『湖南節義錄』을 검토하다 보면 가문 일족이 순절한 예도 있고, 부자 또는 형제가 순절한 예도 확인된다.

97) 이희환, 1983, 『丁酉再亂時 남원성 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 73~74쪽 참조. 정유재란시 태씨 일가가 가동 수백 명을 동원할 여력이 있었는지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남원의 협계태씨 경우엔 태귀생-태천생 형제, 태구-태시경 부자, 그리고 태색까지 5명의 위패가 만인의총에 모셔져 있다. 그들 가계는 임진~정유년 시기 그 어느 가문과 비교해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한 사실에서 남원지역 협계태씨의 경제력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1. 10. 28. / 심사개시일: 2021. 11. 10. / 게재확정일: 2021. 11. 19.

참고문헌

- 『陝溪太氏族譜』(1856·1928年刊), 『龍城誌』, 『湖南節義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亂中雜錄』, 『亂中日記』
김동수 校勘·譯註, 2010,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남원문화원, 1995, 『龍城誌』.
노승석 譯註, 2021, 『(신완역) 亂中日記 校註本』, 여해.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 新現實社.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4,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가삼기획.
조원래, 1991, 「임란 호남의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조원래, 2001,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조원래, 2005,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김동수, 2007,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30권, 29-82쪽.
김동수, 2011,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권, 31-104쪽.
김성우, 2020,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집, 217-256쪽.
김영숙, 1992, 「이충무공 막하인물 분석」, 『충무공 이순신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김종수, 2017,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이치 전투」, 『전북사학』 51호, 335-364쪽.
노기춘, 2009, 「호남절의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권, 217-299쪽.
박순우, 2020, 「고려 후기 발해인 세거(世居) 사례와 조선시대 ‘발해인(渤海人)’ 연구 시론-‘족당(族黨)’의 용례와 남원지역 협계대씨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2권, 251-278쪽.
송정현, 1989, 「임진호남의병 기병고」, 『역사학연구』 3권, 105-128쪽.
이희환, 1983, 「정유재란시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7호.
정영태, 2014, 「정유재란시 남원성전투와 만인의충」, 『역사학연구』 56권, 139-212쪽.
조원래, 1983, 「홍덕남당창의와 채씨일문의 의병활동」, 『한국사연구』 42권.
조원래, 1985, 「임란초기 전라도 의병의 성격」, 『사향』 2권.

- 조원래, 1990, 「정유재란과 石柱關 의병항쟁」, 『구례 石柱關 칠의사』, 구례군.
- 조원래, 1994, 「정유재란과 호남의병」, 『전남사학』 8권, 57-84쪽.
- 조원래, 2000,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 조원래, 2006,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전북인의 창의활동-《호남절의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권, 191-223쪽.
- 하태규, 1999, 「정유재란기 전라도 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10집, 101-138쪽.
- 하태규,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권, 65-103쪽.
- 허선도, 1983, 「임진왜란의 극복과 嶺右義兵-그 전략적 의의를 중심으로-」, 『진주문화』 4권.
- 허선도, 1992, 「壬辰倭亂史論—壬亂史의 올바른 認識—」, 『한국사론』 22권.
- 황병성, 2012, 「정유재란기 이순신의 전략과 의병막하인물」, 『역사학연구』 46권, 67-91쪽.
- 기타지마 만지[北島萬次], 1982, 『朝鮮日日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發』, 東京: そしえて.

<Abstract>

**A Study on Balhae Descendants in the Region of Namwon
during the Imjin War**

Park, Soon-Wo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ivities of Hyupgye Tae clan in Namwon and nearby areas during the war of Imjin (1592-1598). While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region of Namwon and militias of the region are appreciated, the activities of the clan who was quite active in the region has not been brought into light. This study shows some of the ways the clan contributed to war efforts. Taesaik and other members of the clan supported the armies of Ming during the first war. In the second war, they joined the defense of the Namwon castle. In particular, Taegu served as an aide to commander of Jolla and Taesikyung helped leading defense of the castle.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Tae clan helping the war efforts of admiral Yi. Taeguryun that shows up in Nanjung Ilgi (War Diary of Yi Sun-sin) and Taeguiryung who is known for making a sword for the admiral could be the same person. He is not confirmed to be a member of Tae clan but the possibility cannot be excluded given the circumstances. All in 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yupgye Tae clan of Namwon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war efforts from 1592 to 1598.

Key Words : Imjin War, Second Invasion of 1597, Hyupgye Tae Clan, Taesaik, Taegu and Taesikyung (father and son), Taeguisaing and Taecheonsaing (brothers)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Kunsan National Univ.